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출제의도 및 예시답안

시험유형	인문사회계	자연계	의학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출 제 의 도

[문항 1]

문제 1은 사회 불평등의 여러 형태 가운데 성 불평등을 읽어 낼 수 있는 제시문들을 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성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 구체적인 사례 등에 관한 생각을 종합, 정리하여 서술해보도록 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음.

문제 1-1은 페미니즘과 관련된 시, 저서, 교과서 내용을 읽은 후 핵심 정보를 선별하여 시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회 불평등의 실태를 잘 정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음.

문제 1-2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다룬 글과 표를 통해 사회·문화 현상을 파악하고, 두 제시문을 종합하여 읽을 때 도출할 수 있는 현실과 특징을 판단, 추론,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음.

[문항 2]

문제 2-1의 출제 의도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인간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모두 대변되는 공동체의 실현과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임. 고전, 인문, 사회 분야의 다양한 글을 읽고 끝별 사회의 사례를 인간 사회에 확장·적용해 논술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임.

문제 2-2에서 민주주의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6개의 제시문 각각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필자의 의도나 목적 등을 추론하여 읽고, 각 제시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찾아 비교할 수 있는 시각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임. 민주주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들을 주어진 제시문에서 모두 찾고,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핵심 정보를 선별하고 논술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임.

[문항 3]

문제 3을 출제한 의도는 공간과 삶의 방식이라는 주제 아래 문학이 인문, 사회 등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고, 고전을 읽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며, 다양한 유형의 지문을 비교 평가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임.

글의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지문 속 내용의 정확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핵심 논지를 포착한 뒤, 문학 작품 속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핵심 인물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비교하며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주체적 안목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개인의 선택권 중 자유의 개념과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임.

문항해설

[문항 1]

문제 1은 “성차별과 양성평등” 주제와 관련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시문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가운데 성 불평등의 양상을 문학적, 비문학적 글을 통해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이해·정리하는 문제와 그것을 바탕으로 통계 자료에 나타난 특징을 파악하여 서술하는 문제 두 개로 구성하였음.

제시문 (가)는 문정희 시인의 시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임. 다양한 사회 불평등 가운데 성 불평등의 양상과 의미를 운문 형식으로 드러낸 글임.

제시문 (나)는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 시몬 드 보부아르의 책 『제 2의 성』 가운데 ‘제 1장 유년기’ 중 일부분을 발췌한 것임. 여성의 능력이나 지성을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며 남성 위주로 생각해 왔던 여성에 대한 관점을 반박하고, 여성의 열등성은 남성들이 구축한 사회적 이미지일 뿐이라는 주장을 담은 글임.

제시문 (다)는 평등권, 성 불평등, 사회 정의 등에 관한 교과서 지문 내용을 활용하여 재구성한 글임.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있어 장애가 되는 승진의 격차 문제와 출산과 양육을 여성의 의무로 인식하는 성별 분업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제시문 (라)는 성별·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별·연령별 임금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형태에 관한 통계를 표로 제시한 것임. 연령대별로 볼 때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과 월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모두 낮고, 여성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임.

본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평등권, 성 불평등, 사회적 약자, 사회 정의 등에 관한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들임. <고전>, <문학>, <사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법과 정치> 등의 교과목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문항 2]

문제 2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현대 인간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모두 대변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관점의 제시문을 읽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문제를 출제하였음. 각 제시문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필자의 의도나 목적을 추론하며, 민주주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 재구성하도록 하였음. 제시문 (가)는 공동체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글이고, 제시문 (나)는 민주주의가 협상과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된 글임. 제시문 (다)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추방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을, 제시문 (라)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법과 처벌, 즉 법치주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제시문 (마)에서는 선거제도의 개선과 참정권 확대를 통해 소수파의 의견이 대표되는 방식으로의 민주주의 실현을 각각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글임. 마지막으로 제시문 (바)는 꿀벌 집단이 최적의 벌집을 공동의 결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인간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찰해보기 위한 글임.

[문항 3]

문제 3은 ‘공간과 삶의 방식’을 묻고 있음. 모두 2개의 작은 문제로 구성되어 있음. 첫 번째 문제는 ‘동물원 우리’와 ‘등지’라는 공간이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로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 이해를 묻고 있음. 두 번째 문제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평가에 관한 문제로서, 제시문 (마)를 통하여 (가) (다) (라)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삶을 평가하고 논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제시문 (가)는 유하의 <빠삐용-영화 사회학>이란 시로 티브이와 같은 매체에 갇혀 사는 현대인의 우울한 삶을 노래하고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자화상 같은 작품임. 자유를 향해 몸을 던지는 빠삐용과 주저앉고 마는 드가를 대비하여 시적 화자인 ‘나’의 현재 모습을 반추하고 있음. 고등학생들의 EBS 교재(수능완성 국어영역)에 수록된 글임.

제시문 (나)는 박이문의 『등지의 철학』에 나오는 철학적 담론으로, 인간의 생태주의적 사고를 계발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를 환기하고 있음. 박이문의 다른 글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바 있음. ‘등지’가 갖는 상징성은 제시문 (가)의 유하의 시에 보이는 ‘동물원 우리’와 비교. 대조되면서 그 특징이 드러나고 있음.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의 성취 기준 ‘글쓰이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내용 등을 추론하며 글을 읽는다’에 연관됨.

제시문 (다)는 김정한의 소설 <산거죽>으로 산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수도용 우물이 집달리에 의해 헐리는 것을 산에 사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여 자신의 삶터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도록 하는 자료임. 황거철은 주인공으로 싸움을 주도하는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자로 그려지고 있음.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었으며 EBS 교재(수능완성 국어영역)에 이 소설의 다른 부분이 수록되어 있음.

제시문 (라)는 사마천이 지은 <백이열전>으로 그의 인간학적 성찰을 보여주는 작품임.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의 제후국인 고죽국의 왕자들로서 왕위를 피하여 주나라로 피해왔다가, 천자의 나라인 은나라를 공격하려는 주나라 무왕을 만류했음.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자 수양산으로 들어가 굶주려 죽은 인물임. 이들은 유가의 효나 인과 같은 도덕이 사라져 가는 세상에 대해 소극적이지만 거부하는 지사적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 고등학교 고전교과서에 수록된 글임.

제시문 (마)는 권정생의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임.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살 것을 환기하는 저자의 시각은 교육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임.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글임.

끝으로 <보기>에서 자유의 두 가지 경우를 개념 제시하였음. 이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참조하여 문제에 맞게 개념을 재구성하였음.

예 시 답 안

[문항 1]

1-1.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 관념과 차별적인 사회화는 여성을 자주적 존재가 아닌 타자적 존재로서 살아가게 한다. 차별적 사회화는 여성에게 가사와 양육의 책임을 강요하여 능력이 뛰어난 여성조차도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또한 성불평등은 직장생활에서도 '유리벽'과 '유리천장'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은 여성의 취업과 승진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1-2.

<표1>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으며 특히 30대 이후에 그 격차가 크다. 이는 출산과 양육을 여성의 책임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사회적 지원이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표2>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임금수준은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높다. 이러한 격차는 30대 이후 더욱 크다. 이는 유리천장과 유리벽으로 인해 여성이 고위직 승진과 핵심 업무 배정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40대 이후에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양육 등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제약 때문에 나타난다.

[문항 2]

2-1.

일벌들로 구성된 꿀벌정찰대는 새 집터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 집단지성을 실현하여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가)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정찰 꿀벌들이 8자춤으로 위치 정보 전달과 의견 교환을 하고, 경험으로부터 배워 최적의 집터를 공동 결정하는데, 이는 (나)의 협상과 타협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간사회에 시사하고 있다.

2-2.

(마)는 다수파의 권력 남용에 따른 민주주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다. 해결책으로 (다)는 협상과 타협, (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추방, (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법과 처벌, (바)는 다수파의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선거 제도와 참정권 확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협상과 타협이 없으면 의견 일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독선과 불통을 경험하게 되며, 보이지 않는 권력을 추방하지 못하면 정치적 결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부당하게 된다. 공평한 법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외가 인정되어 국가의 통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며, 선거제도와 참정권 확대를 통해 다수파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항 3]

3-1.

㉠과 ㉡은 둘 다 공간이자 거처로 생물이 살아가는 곳이다. 하지만 ㉠은 우울하고 서늘하며 자유가 구속된 공간이다. 즉 부정적 현실을 표상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여야만 하는 숨막히는, 반문명적 공간이다. 반면 ㉡은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가정이며, 주위 환경이나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문화적 공간이다. 즉 자유롭고 따뜻하며 행복한 삶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3-2.

(마)는 어떻게 해야 인간답게 사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고민할 때 일어난다. 빠삐용은 자신을 억압하는 곳으로부터 탈출한다. 하지만 그는 개인의 자유를 위할 뿐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는다. 반면 드가는 자신을 구속하는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안주한다. 한편 황거칠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샷등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백이와 숙제는 유교적 도를 행하지 않는 주나라를 떠나 수양산으로 갔다. 개인적으로는 억압에서 벗어났지만, 사회를 바꾸지는 않는다. 그래서 빠삐용, 백이와 숙제는 소극적 자유를 향하고, 황거칠은 적극적 자유를 향하며, 드가는 어떤 자유도 추구하지 않는다.